

노동자들의 민주주의 요구는 동성애자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국가는 성(性)에 있어서도 억압적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건설할 권리와 생존권을 방어할 권리를 억눌렀던 나라에서는 하나 같이 억압적인 성적 보수주의가 노동자들의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억눌러 왔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유럽의 독재 정권들이 그러했고, 남미의 군사정권들도 성을 은폐하고 억압해왔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히틀러의 나찌 국가와 스탈린의 소련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까지 독일은 전세계 동성애인권운동의 심장부였습니다. 히틀러가 모든 노동자 조직을 박살내고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가스 수용소로 보냈을 때 수 만명의 동성애자들도 독가스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 때 동성애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가슴에 분홍색 삼각형을 표시했는데, 그 후 분홍 삼각형은 동성애자들의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스탈린의 소련에서는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집 밖에서는 성과 관련한 언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법률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고 지지한 1917년의 소비에트 헌법에 비하면 엄청난 후퇴이고 타락입니다.

이처럼 노동자 투쟁이 급격히 후퇴한 시기에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도 후퇴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을 건설 할 자유가 탄압받고 생존권 사수조차 조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투쟁은 민주주의 투쟁으로써도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 사수조차 노동자들의 힘과 투쟁에 의해 결판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한 여성 노동자와의 인터뷰 >

지난 25일 종묘 집회에서 우리 깃발을 보고 찾아 온 성남의 청년 단체에서 일하신다는 한 여성 노동자와 짧게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동인협: 무지개 깃발의 의미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노동자: 평소에 동성애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어떤 잡지에 동성애에 관한 기사가 나와서 깃발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동인협: 동성애자는 아니세요?

노동자: 동성애자라는 의미가 모호해요. 저는 여자 남자를 나눠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혼도 하고 같이 살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인협: 같이 일하시는 단체에 있는 분들의 동성애자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습니까?

노동자: 동성애에 대해 토론한 적이 없어서 잘모르겠지만 투쟁의 자리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예의가 있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보다 훨씬 포용력이 있고, 다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골방에서 나와 거리로!

-동성애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 투쟁 속보 4호

안녕하십니까? 노동자 동지 여러분.

저희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동인협)는 노동자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한 달을 넘게 진행된 노동자들의 위력적인 파업 투쟁은 오만한 김영삼 정부를 한 발 물리서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노동법과 안기부법 전면 백지화라는 항복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보 철강의 부도사태로 인해 더욱 더 불안해진 남한 경제의 위기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얄은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 수록 청와대 관련설이니 김현철 관련설이니, 정부에 불리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부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력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더 밀어부친다면 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확실히 물리서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인협은 그 동안 현장과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성애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노동자집회 때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참여했습니다. 노동자 투쟁과 결합하면서 저희들은 많은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어린 눈으로만 바라보시던 노동자들이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같이 싸울 수 있어서 반갑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격려가 더 많은 동성애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 거리로 나오게 했습니다.

노동자 투쟁이 억압받는 사람들의 투쟁도 고무한다는 것은 노동자 투쟁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투쟁에 동참하는 동성애 노동자들이 더욱 더 많아 질 수록 우리의 힘은 그만큼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알립니다.

1. 무지개 깃발은 피부색과 국적을 넘어선 5대양 6대주의 동성애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의미합니다.
2.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는 남성 동성애자 인권운동 모임인 친구사이(3141-7942), 여성 동성애자 인권모임인 끼리끼리(363-7213), 대학동성애자협의회, 하이텔 동성애자 모임 또 하나의 사랑 (go SG 172), 주한 외국인여성 동성애자 모임인 사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동성애자 인권 운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과 매주 일요일 7시 신촌의 쇼너(393-3069)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동성애자가 아닌 분들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왜 노동자 투쟁에 동성애자들이 연대해야 하는가?, 왜 노동자들은 동성애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모임 대표: 연 호 수 012-1135-1871(모임과 무관한 연락도 무방합니다)

골방에서 나와 거리로!

동성애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투쟁 속보 3호

안녕하십니까? 노동자 동지 여러분.

저희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 협의회(동인협)는 노동자 동지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정부가 날치기한 노동법과 안기부법은 이 땅의 2500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조전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사장들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하지 않던 정부와 사장들이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책임이 모두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인 양 호도하며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장들과 정부의 위선에 맞선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지금 벌이고 있는 파업의 정당성은 이전까지 자신있게 나아가지 못했던 많은 부분의 노동자들과 중간계급들을 노동자들의 시위대열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총파업은 모든 부분의 노동자들을 단결시켜 하나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역, 업종, 사업장, 성별, 피부색, 숙련정도, 그리고 성적지향(동성애, 이성애) 등 무수히 많은 작은 부분으로 잘려지고 나뉘어져 왔습니다. 사장들과 정부는 노동자들의 이러한 근무조건, 차이와 외형적, 성적 차이들을 이용하여 서로가 단결하고 연대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선거때만되면 지방색으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여자와 남자의 일을 나누어서 파업하는 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과 남성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남성노동자들이 파업할 땐 “여우같은 마누라” 논리로 노동자들의 발길을 잡아매었습니다. 이 뿐입니까?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가 이 나라 노동자들의 실업과 범죄를 유발하는 존재라는 악선전을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한국인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막았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단체들의 대표들을 강제추방시키려 하며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을 깨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사장들과 정부의 “분열시켜 지배하라!”는 격언을 박살내는 방법은 모든 부분의 노동자들이 손을 잡고 사장들과 정부에 맞서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애자들의 대다수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싸우는 노동자들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동성애자라고 당당히 밝힌다면 아마 정리해고 대상 1호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과 지배자들이 끊임없이 동성애자들을 비정상이고, 에이즈 전염균이고, 변태들이고, 사회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동성애자 동료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장들에게 해고된다고 해서 별다른 반발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외하곤 사실상 아무런 차이도 없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차별받는 이유는 그 차별을 통해 마땅히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성노동자의 임금의 55%만을 받도록 강요받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주는 것은 사장들과 정부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차별받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지배자들이 노동자들의 보수적 심리를 자극할 때마다 들먹이는 “남자는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일 하며 애나 키워라!”는 생각에 동성애자들이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나라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의 굴종을 깨고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높이며 잃어버린 권리들을 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억압적인 조건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일수록 처음부터 자신감있게 투쟁에 동참하기는 힘듭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차별적인 사회조건들 때문에 여성의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있게 떨쳐나간 노동자들이 이런 억압받는 노동자들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연대해 준다면 억압에 대한 분노는 노동자 투쟁의 또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들과 정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항상 억압받고 차별받는 이들의 행동을 고무해왔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억압들을 이해하고 서로 지지하고 연대한다면 우리의 힘은 그만큼 커질 것이고 정말 한 줌 밖에 되지 않는 사장과 정부의 분열지배전략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알림방

1. 무지개 깃발은 피부색과 국적을 넘어선 5대양 6대주의 동성애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의미합니다.
2.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과 매주 일요일 7시 신촌 쇼너(393-3069)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문의 → 연 호 수 (012-849-1191)
3.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는 남성동성애자 인권모임인 친구사이(3141-7942), 여성동성애자 인권모임인 끼리끼리(363-7213), 대학동성애자협의회, 하이텔 또사모(go sg172), 주한외국인여성동성애자모임인 사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공연의 계획서(가안)

그동안 먼 달 남게 전경다운 노동법과 연가법안이 반대하는 동연법 반대투쟁위원회와 활동을 정리하고 참여하신 분들과 작자의 주신 활동에 제의 활동을 발표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집회참여, 각 중 연가법, 노동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동성애자들이 참여했음에도 아직은 일보의 진전으로만 남아 있는 여건의 현실들을 공개적으로 목상시키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극 동성애운동의 발전적인 면의 의의로 인해 활동들이 평가되기를 희망하면서 각 단지에 있는 분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1. 주제: 동성애자들이 노동법 집회에 간 이유는?

2. 주제: 동연법 반대투쟁위원회

3. 형식 - 내용

- 1) 토성 사진전
- 2) 토성 다크맨타리 상영
- 3) 토성 평가 토론

4. 내용 준비 상황

- 1) 사진전 - 집회에서 찍은 사진들 중 동성애자들의 투쟁의지를 가장 잘 나타낸 사진들을 골라 확대해서 사진전을 할 생각입니다.
- 2) 토성 다크맨타리 상영 - 먼저 필름은 자체 제작한 집회 참여 필름과 연가법 반대투쟁의 소강성들이 찍은 LG에서 노동자의 투쟁의 필름 도가 있습니다. 이로 더 찍어서 전문가에게 편집을 부탁해서 당일 토론에 전여 상영할 생각입니다. 내용은 오래된 활동의 기록적으로 보여주는 필름 단편을 것입니다.

3) 토론

1. 짧은 발표 - 주제: 동성애자들이 노동자 투쟁에 간 이유, 그리고 그 이유
발제자: 연모스

2. 토론에 전여 소요자: 장단어

5. 형식 준비 상황

- 1) 장소 연전: 연다나 서강대로 계획. 각 먹고 먹상도와 상점사 의의의와 연의 할 것임.
- 2) **공동 주제**: 먹고 마시 기와 불타는 여나 연의에 불 것임.
- 3) 홍보 포스터와 광고(신문 또는 지역 다지보 등) - 다동연과 연의 할 생각
- 4) 리플렛 제작: 발행과 각 단지 소가, 투쟁일지, 자금 사용 내역서 등. 오래로 판다.
- 5) 저장: ?

동성애자들이 노동자 집회에 간 까닭은?

지난 1월 14일 노동법과 안기법 날치기로 한참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무렵 민주노총은 정오가 조금 지난 무렵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여느때처럼 집회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직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다소 썰렁한 분위기가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시선을 자꾸 좌우로 돌리게 만들던 무렵, 일군의 평범한 사람들 대여섯이 나타났다.

그들은 소란스럽게 부산을 뿔뿔히 깃발을 꺼내고, 피켓을 꺼내들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이 작은 대열은 금세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는데, 그들의 깃발 색깔의 요란함 때문이었다.

빨·주·노·초·파·남·보라색의 무지개 깃발을 이 나라 노동자들은 그 때 처음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 집회에 온 노동자들은 무지개 깃발 밑에 암전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호모들”인 것도 몰랐을 것이며, 이 땅의 “호모들”이 처음으로 한 낮에, 시내 한복판에 나타났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동성애자들의 집단적인 드러내기(“커밍아웃”이라고 불린다.)는 자그마한 반향을 일으켰다. 일단 동성애자들 내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처음에 3명이 발의해서 시작한 이 운동은 지금까지 37명의 동성애자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 그 중에 반은 레즈비언들이었는데, 그동안 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그래서 더 자신감있는 행동을 조직하기 어려웠던) 레즈비언들이 많이 참여한 것은 이 운동의 참여자들을 가장 고무했던 일이었다.

또한 아직 거리로 나올 자신감이 없는 동성애자들은 유인물제작 등에 쓸 후원금을 조직해주었다. 단시일 만에 100만원이 넘는 돈이 후원금으로 모아졌다. 그들의 열렬한 후원은 참여자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이 소수의 고립된 행동이 아님을 인식하게 해줬다.

집회에 참여하면서 얻은 반응들도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있던 일반인들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반응과는 사뭇 다른 것들이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덤덤하게(?) 우리를 받아들였다. 그들의 의식 속에 호모포비아(동성애 공포증)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성애자들을 배척하거나 쫓아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들이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다. 특히, 우리를 노조로 초청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던 LG화재 노동자들과의 토론회는 가장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처음에는 절끄러운 점이 없지 않았을 테지만 서로 토론하고, 술마시며, 웃고 떠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 어떤 차이점도 없는 “사람들”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 모든 평가에 대해 녀석들은 동성애자들 몇몇과 사려깊고 예의바른 노동자들이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식으로 바라봐선 안될 것이다.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발전시킨다면 그동안 거품으로만 존재했던 동성애 담론이 제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실마리들을 풀어낼 수 있다. 그동안의 동성애자 해방 논의가 동성애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동성애자들의 활동 속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입증된 것들로 새롭게 담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어떻게 해야 동성애 해방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부터 다시 던져야 한다.

“왜 동성애자들이 노동자 집회에 갔을까?”

“노동자니까.”

어찌보면 간단하다. 하지만 문제는 더 복잡하다. 위의 물음 속에는 “왜 커밍아웃하는 자리로 집회라는 형식을 빌렸는가?”, “왜 하필 노동자 집회인가?”, “노동법과 동성애자 억압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등등의 많은 물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선 많은 말들이 필요하다.

1. 동성애자들이 억압받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억압에 맞서 어떤 방향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2. 기존의 동성애 운동이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움직였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활동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두가지를 명확하게 한다면 위 질문에 대한 답이 저절로 나올 것이다.

1. 동성애자들이 억압받는 이유가 궁금하다.

왜 동성애자들은 억압받을까? 몰라서 묻니? 당연히 인간의 신체구조와 본능에 어긋나는 연애를 하기 때문이지. 신이 정해진 남·녀의 역할이 있는데, 남자끼리(또는 여자끼리) 그런다는게 “정상”이니?

동성애 억압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는 가장 통속적인 신화는 동성애자들이 인간본성에 어긋나는 “비정상”이고, “변태성욕자들”이고, “성도착자”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들에서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서구 문화의 근원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고대 그리스 사회는 동성애를 최고의 사랑형태로 미화한 사회이다. 그리스 신화의 아름다운 장면인 아도니스와 아폴론(태양신)의 러브스토리(아폴론과 푸쉬케의 큐피트의 화살에 의한 강요된 이성애와 비교해 보라)는 시공을 뛰어넘으며 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도니스는 남자였다. 그리스 사회에서 남성이 젊은 남성과 사랑에 빠져 성관계를 갖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었다.

가까운 일본에서 지금까지 추앙받고 있는 사무라이의 무사도엔 사무라이들 사이의 동성애를 규약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말고도 동성애가 용인된 사회는 무수히 많다. 심지어 동성애를 엄격히 금지하는 나라에서도 동성애는 발견된다. 이를 통해 어떠한 성애(性愛)를 “정상”,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신체구조나 인간본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문제를 좀더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제는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 동성애 억압을 낳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흔히 동성애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동성애자들은 이러 저러한 문제에 대해 똑같이 생각하고, 정해진 식으로 옷을 입고, 정해진 장소에 자주 가며, 동성애자와 완전히 동일시 되는 특정한 문제에만 부딪힌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동성애자라는 인간유형에 대한 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편견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관념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69년 헝가리인 의사 벤케르트(Benkert)가 처음으로 사용한 “동성애”라는 개념은 이전까지 단순히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개념들(악의적인 의미의 소도미나 우월한 의미의 우라니언 러브 등)과는 다르게 동성애자라는 인간유형과 다른 성적 지향을 따르는 인간유형을 구분하는(성적으로만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고안되었다.

왜 하필이면 19세기 후반에 이러한 관념이 생겨났을까?

<커밍 아웃>의 저자 제프리 위크스(Jeffrey Weeks)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전개 양식은 산업자본주의가 승리하고 도시화가 이루어져 가족과 성관계가 개조되는 과정의 일부로 바라볼 때에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공식 담론에서 이제는 진부한 문구가 되어버린 개념과 의미들, 예컨대 '주부'·'예춘부'·'아동'의 의미나 '동성애자'라는 개념들이 근대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은 모든 이런 변화의 결과였다. 왜냐하면 다음이던 자본주의 가족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동성애의 근대적 개념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위크스는 "자본주의 가족제도가 동성애 억압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위크스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문제를 가족제도와 연관지어 바라본다. 사실 모든 계급사회에서 가족은 성적인 순종이 실행되는 주요 제도였다. 동성애자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도 가족 제도는 최대의 난적(亂賊)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자본주의 가족인가? 자본주의 이전에도 가족은 있어왔지 않았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에서 가족이 똑같은 형태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예들은 가족을 가질 수가 없었다. 사회적 노동력으로서의 노예의 재생산을 출산이 아닌 약탈로 충원하던 사회였기 때문이다.

사무라이의 일본 같은 봉건제 사회에서는 가족이 생산의 중심이었다. 따라서 가부장들이 가족을 유지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가족을 떠나서는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가족은 더 이상 생산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주로 소비와 노동력 재생산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을 떠나 삶을 영위하기가 더 쉬워졌다.

이처럼 가족은 역사적 상황(특히 사회적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관련해서)에 따라 변해왔고, 결코 고정불변의 실체로써 인간 삶을 규정짓지는 않았다.

문제를 더 구체화 시켜보자.

근대적 동성애 개념의 생성과 자본주의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선 자본주의 가족이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데 있어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았는지를 알면 된다.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가족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우연적인 일에 의하지 않고는 거의 파괴되거나 해체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지배계급)이 가족이 소멸되어 사회적 생산이 중단되는 일을 걱정할 필요성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계급사회 가운데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혁명적인 체제이며, 기존의 모든 고정된 것들을 변화시켜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경제적 토대이다. 가족도 자본주의의 이러한 성격에서 예외일 수 없다. 어느 나라건 초기 산업화 과정은 생산의 한 단위인 가족의 기초를 허물어 버림으로써 기존의 노동계급 가족을 갈갈히 찢어 놓는다. 여성과 남성과 아이들 모두가 한 가족의 성원으로써가 아니라, 똑같은 '자유로운' 노동자로서 새로운 공장으로 끌려간다. 먼 도시로 가거나 이만을 가는 걸 통해 생이별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해도 대부분 끔찍하게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으로 그들의 정상적인 가족 생활 비슷한 것은 파괴되어 버리기 일쑤다. 독자적인 생활수단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반드시 결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가족은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해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은 계속 존재해왔고, 변성해왔다. 하지만 이전 사회의 가족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띠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노동력 공급에 의존했으며,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

을 굳혀갔다. 또한 가족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현재의 노동조건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되었다. 끔찍하게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조건에서 쫓돈을 벌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핵가족은 유일한 대안인 듯했다. 노동자들은 여성과 아이들을 특정한 일자리에서 점차 배제시키고, '가족 임금'을 남성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도록 싸워왔다. 특히 여성들은 불임중에 걸려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산업에서 배제되었다. 덕분에 영유아의 사망률이 상당히 떨어졌고 여성의 수명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하지만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일을 한다, 애들은 물론 잘 자란다는 식의 핵가족의 이상은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다. 자본가들이 그런 이상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가족 임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동계급의 가족 구성원들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한다.

따라서 노동계급에게 새로운 가족을 강요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광범위하게 부과되었다.

여기에서 동성애자들의 비극은 시작된다. 동성애자들은 아름다운 핵가족의 이상에 걸맞지 않은 존재인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핵가족의 이상에 걸맞지 않은 모든 성적 행위(미혼모, 이혼, 낙태 등)와 마찬가지로 공격당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러한 공격의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본주의가 가족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는가를 더 이야기 해야겠다.

첫째, 모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력의 재생산이다. 노동력의 재생산은 두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인간의 생산이다. 특히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생산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다는 것 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가족은 아이를 기르고, 교육하고, 체제에 순응적인 미래의 노동자로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미래의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자본가들이 아니라 가족 스스로가 그 비용을 낸다는 의미에서 가족을 유지하는 것이 자본가들에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된다. 당장 이 나라에서 애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인지를 보라!

또 하나는 나날의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는 점이다. 남자는 보통 부인이 제공하는 가사노동과 성적 서비스로 다음날 일할 노동력을 충당한다. 생산은 사회화되어 있는 반면 재생산 비용은 가족이 부담한다. 이것 또한 노동자들의 복지비용에 한 톨이라도 덜 쓰고 싶어하는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진다.

둘째, 가족은 노동력을 판매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 즉 병자나 장애인, 노인 등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실업과 재학기간의 연장 등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가족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자본주의에서 가족이 소비 단위가 되면서 가족은 거대한 상품 시장이 되어왔다. 거의 모든 생필품이 "기성품"이다.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집안가구나 안락한 가정생활에 대한 환상을 퍼트린다. 수 많은 남성과 여성이 이러한 상품 전략에 속아 넘어가 가족을 미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다.

네째, 가족은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만회하고 무정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곳이라는 환상을 만들어 낸다.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살은 노동이 끝나는 시간부터'라고 생각한다. 가족을 통제하는 걸 통해 남성과 여성은 자신의 존재를 자각한다.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이 가족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따라 자신의 삶이 가치있는 삶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 따라서 "가장이데올로기"와 "어머니이데올로기"가 강조된다. 자신의 초라한 생활에 대한 불평을

자본가가 아닌 가족에게 피부어 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 청소년 탈선문제 등 가족에게 요구할 것이 지배자들에게 너무 많다.

바로 이러한 가족의 역할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억압받는다. 위의 어떤 것도 동성애자들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만족시키기는 커녕 이러한 가족의 역할을 위협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득 때문에 가족은 개개인이 선택하는 삶의 한 방안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고 제한하는 공적인 문제가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족 해체적 경향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상품의 개발에 따른 독신의 삶의 가능성이 늘어나면서 국가의 개입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특히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적어도 소수에게는 성애(性愛)를 훨씬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은 급절로 중요해졌다. 오래된 존락 공동체가 붕괴하고, 그와 더불어 교회나 전통의 가치가 해은 억압이 사라졌으며, 젊은이들이 독자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가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대도시의 익명의 삶을 보장했다. 이 모든 것이 동성애가 번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냈다.

그러자 국가는 일련의 억압적인 법률을 만들고 본보기가 될만한 범정 사건을 동원해 모든 '비정상적' 성행위가 어떤 건지 규정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을 사회적 별종으로 만들어 버렸다.

2. 동성애 운동의 성과와 한계점들

동성애자들이 억압받는 원인은 자본주의적 가족 때문이다.

그동안 수 많은 활동가들이 이러한 가족제도에 맞서 싸워왔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실패했던 것 같다. 현실에서 여전히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이상을 아름다운 가족을 만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다.(동성애자들에 대한 억압적 법률이 없는 나라도 동성애를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핵가족은 여전히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동성애자 억압에 맞선 싸움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수많은 조직들이 만들어 졌으며, 동성애 문제를 거리로, 학원으로, 매스미디어로, 교회로 끌어들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광범위한 사회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69년에 미국의 뉴욕주에서 벌어진 스톤월 봉기는 세기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머리핀 떨어지는 소리가 세계를 뒤흔들었다." 는 평가는 절대 과장이 아니었다. 이 운동은 어마어마한 성과를 남겼다.

동성애를 공공연히 지지하는 사람들을 양산해 냈으며,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덕분에 동성애를 인간의 하나의 성적 지향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식인 사회에 널리 퍼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러한 유희적인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확실히 소수는 동성애자들의 투쟁의 결과로 이전부터 훨씬 넓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서구에서 동성애자 영화평론가, 동성애자 가수나 배우, 동성애자 텔레비전 프로듀서나 감독, 동성애자 디자이너, 동성애자 사장들은 커다란 억압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동성애적 취향으로 인기를 얻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일명 핑크 경제)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기며, 날로 사업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동성애자 전체로 확산시켜 바라보면 거의 전세계의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의 전염
균으로 취급받고,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직장과 고향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두가지의 모순적인 상황은 그간의 동성애 운동이 추구해온 바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
게 만든다. (물론 필자의 짧은 지식으로 기간의 모든 동성애 운동의 방향성과 활동을 알 수는 없
다. 하지만 일반화될 수 있는 몇가지 경향을 분석하는 걸 통해 필자의 주장을 전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논의에서 과도한 일반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비판적 지적을 환영한다.)

먼저 동성애자 해방을 위해 싸워 온 많은 투사들이 걸려 넘어진 핵심적인 문제 두가지를 들어
보자.

첫째, 동성애자들에 대한 억압의 원인을 주로 사람들의 무지(無知), 잘못된 편견 때문이라고 보
면서, 동성애억압에 맞선 싸움은 잘못된 관념에 맞선 싸움으로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상호보완적이고, 똑같이 그릇된 두가지의 전략이 생겨났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들의 바른 생활태도를 보여주어 동성애에 대한 이유없는 편견을 없
애려는 전략이다. “동성애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는 생각이 널리 확산된다면 동성애자
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게 이 전략의 핵심이다.

문제를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교육과 선전이 중요해진다. 동성애의
정당성을 알리는 출판사업, 강연회, TV 출연, 영화제작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계몽하려는 사
람들의 활동은 그러한 매체의 영향력에 비례하며 사회적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물론 이들의 활동은 많은 동성애자들을 고무했고, 동성애 운동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단지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구호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좀 더
대중적인 매체에서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가족제도를 공공연히 공격하고, 가족제도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람들이 적게 모이고,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동성애 억압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교육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같은 이유로 동성애 해방운동에 대중적인 매체를 끌어들이려 했던 사람들은 대중매체의 성향을
변화시키기 보단 자신의 위치를 격상시켜 좀 더 많은 주목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서구에서 유명한 동성애자가 토크쇼에 나와 사회의 이성애적 편향을 비웃는 것은
이젠 낯익은 것이 되었지만 다수의 동성애자들이 당당하게 이성애 사회를 공격하는 것은 아직 요
원한 일로 남아있다.

또 다른 하나는 소위 “행동을 통한 선전”인데, 현재의 사회체제 내에서 자본주의적 가족이 아
닌 다른 가족이나 확대된 가족(공동체)의 방식을 실험하는 걸 통해 동성애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
여주는 전략이다. 게이들의 결혼이나 레즈비언들의 결혼, 또는 게이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과
레즈비언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전략은 많은 게이와 레즈비언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동성애자들
을 위한 배려가 전혀없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대도시에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음으로
해서 생활에 있어 더욱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 해서 많은 동성애자에게 동성끼리의 결혼과 자신
들만의 공동체 건설은 또다른 대안으로 보였다.

이러한 요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들과 같이 지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걸 통해 동성애자들은 여러가지 경제적 불이익—예컨대, 연금이나 의료보장제도 등—을 받고있다.

하지만 해방의 이론으로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안적 공동체 건설은 기존의 동성애

공동체가 성적(性的)으로 너무 퇴폐적이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퇴폐성이 지배자들의 공격을 유발한다는 인식 하에, 건전한 동성애 문화를 만드는 걸 통해 언론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보통 성적(性的)인 보수주의를 자신들이 장점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동성관계에서도 일부일체제를 받아들이며, 문란한 성관계를 척결하고 이상적인 사랑형태를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에이즈라는 마녀 사냥을 통해 그러한 공동체가 박살이 났던 것처럼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동성끼리의 결혼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가족에게 부과하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용인된 가족제도를 흉내내는 걸 통해 자본주의 가족에 도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어느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곤 동성애 가족을 이루는 일은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회에서 지배적인 관념을 양산해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을 척결하고 핵가족의 이상을 확대, 강화하는 것에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둔다. 따라서 이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동성애 억압의 물질적 기초를 공격하지 않고, 동성애의 정당성을 홍보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지프스의 노동일 수밖에 없다.

두번째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동성애 운동이 가지고 있는 부문주의의 문제이다.

부문주의의 공식은 단순하다. 즉, 모든 동성애자들이 억압받는다. 따라서 모두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만큼 같이 모여야 한다.

동성애 부문 정치는 전략면에서 성적 취향이 같은 개인들의 정체성을 그 정치의 출발점이자 조직의 기초로 삼는다.

부문 정치는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고통 받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확실한 저항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부문 정치는 억압자들이 멸시하고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러한 특성들을 자존심과 자기 주장의 문제로 돌려버린다.

이러한 자기 주장이 자기 비하보다 훨씬 나은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동성애자의 공공연한 저항이 은폐된 곳에서 죄의식을 느끼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부문 정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명백하다. 부문 정치의 핵심 전제는 모든 이성애자가 모든 동성애자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제각기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억압은 동성애자에게만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여성이고 레즈비언이라면 그녀는 어느 조직에 들어가야 할까? 자신이 외국인 노동자이고 게이라면 그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야 할까?

이런 식으로 억압의 특성에만 기초해서 조직을 건설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자꾸 잘게 쪼개져 들어가게 마련이다.

미국에서 여성해방을 추구한 단체들의 경험은 부문주의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준다. 개인의 정체성의 자각이라는 여성운동의 정치는 결국 정치적인 레즈비언과 이성을 지지하는 여성들,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들 또는 아시아 여성들, 백인 레즈비언과 흑인 레즈비언 등으로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부문들로 쪼개져 다양한 여성 단체들 사이의 적대감

은 끔찍한 수준으로까지 나아갔다. 한 미국의 페미니스트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여성 단체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다른 자매들을 다 죽일 정도이다.”

부문 정치의 또다른 핵심인 모든 동성애자가 억압받는다라는 점에도 의문을 던져볼 수 있다.

사실 수 많은 동성애자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억압을 경험한다. 돈이 많은 동성애자는 상대적으로 잘생긴 동성애 상대를 구해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둘만의 공간에서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한 동성애자는 지저분한 곳에서 상대를 구해 지저분한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 돈에 쫓달려 데이트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돈이 많은 동성애자는 자신의 성향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 비웃음을 당하겠지만 자신의 주거(住居)나 생활 환경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한 동성애자는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존권을 박탈 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비난을 들어도 다른 주거환경을 구하기가 힘들다. 자본주의에서 동성애 성향과 삶의 조건은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억압은 더욱 극심하기 마련이다.

좀 더 다른 현실을 말하자면 투쟁의 경험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파업에는 많은 동성애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총파업에 반대하는 대열에도 많은 동성애 사장들이 있었다.

현실은 동성애자들이 서로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본주의 가족을 공격할 때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동성애 사장들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치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이성애 자본가들과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향 때문에 약간의 비웃음과 따돌림을 받더라도 자신의 직접적인 이윤에 더 집착한다.

하지만 노동자 동성애자들은 더 많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임금)을 따내기 위해 싸운다. 그리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사회가 지불하도록 하는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같은 동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 온폐된다면 자본주의 가족을 공격할 수는 없는 일이다.

3. 동성애자들이 노동자 집회에 간 이유.

동성애자들이 억압받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가족을 유지하는데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가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사람들의 잘못된 관념으로 돌려 이성애자들을 계몽하거나, 동성애자 개개인들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운동을 조직할 수 없다.

현실에서 이 두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동성애자들은 노동력 재생산을 사회화하는 것을 자신의 투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 투쟁에 모든 동성애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결국 계급 문제는 투쟁의 과정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동성애자만 이러한 목표를 가진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가족은 동성애자들을 배척하지만 또한 여성들을 가족의 굴레 속에 가두어 두려운다. 여성이 가족에서 수행하는 가사 노동과 육아 노동은 부불(不拂)노동으로 자본가들은 이 지급되지 않는 노동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고있다.

카스 에니스(Kath Ennis)는 그녀의 책 <여성의 의식>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자본가가 뽑아내는 잉여는 단지 노동하는 남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성의 일노동과 가정에서 일하는 여성의 가사노동의 결합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 해방의 문제는 동성애 해방의 문제와 결코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자들은 여성 해방을 위한 싸움에도 같이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력 재생산의 사회화는 모든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현재 이 나라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수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적 복지자금 삭감에 맞서 싸우는 현실은 동성애자들이 환영해야 할 일이다.

모든 억압은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에서 연결되어 있다. 동성애 해방에 진지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억압에 맞선 싸움이 결국 착취에 맞선 싸움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제 서서히 결론이 도출되는 것 같다.

동성애자들이 노동자 집회에 간 이유는 그들이 노동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들과 동성애자들은 노동력 재생산의 사회화라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는 투쟁은 자본주의 가족에게 부과된 여러가지 사회적 기능들에 맞서는 투쟁이기도 하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명예퇴직 바람과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기운이 빠진 가장에게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등, 아버지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등)을 강조하는 배경도 자신들이 유발시킨 실업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저극적인 연대를 보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동성애자들의 억압을 이해하고 같이 싸워야 한다.

우리는 사실 같은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도서 > _____

1. 「동성애 억압의 사회사」, 노라 칼린, 책갈피
2. 「동성애자 해방 운동과 마르크스 주의」, 노엘 헬리팩스, 책갈피
3. 「여성 해방의 정치학」, 린지 저먼, 여성사
4. 「노동자 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 토니 클리프, 국제 사회주의자들
5. <동인협 연대 투쟁위원회 유인물 3호, 4호>